

手足多汗症의 형상의학적 고찰

정흥식 · 박재홍 · 강경화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Study of Hands and Feet Hyperhidrosis according to Hyungsang Remedy

Heung Sik Jung, Jae Hong Park, Kyung Hwa Kang,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below after studying about the cause of limb hyperhidrosis through references, putting the result into practice clinically from Hyungsang remedy point of view, examining the effect of treatment. The cause of limb, palm and sole hyperhidrosis. The cause of limb hyperhidrosis is stomach heat(Yangmyung heat), weakness and coldness of stomach, moisture and heat of spleen and stomach, energy insufficiency of spleen and stomach, weakness of Yin of spleen and stomach, heat by weakness Yin meridian, unspread energy of liver, severe heat of heart, weakness of heart, shortage of blood, the functional disorder of kidney meridian and heart meridian(disposition of water ascension and fire descent), heat of blood(the functional disorder of heart) etc. The cause of palm hyperhidrosis is blood insufficiency of heart and liver or the functional disease of heart and stomach. The cause of sole hyperhidrosis is the functional disease of heart and kidney or the functional disease of kidney. Types classified by the cause of limb hyperhidrosis. The case of stomach heat, moisture and heat of spleen and stomach is found a lot in Yangmyeong and Fish Type. The case of weakness and coldness of stomach or insufficiency energy of spleen and stomach is found in Bangkwang and Ki Type, the shape of disorder of transfer and transformation of spleen and stomach. The case of severe heat of heart, the functional disorder of kidney meridian and heart meridian(disposition of water ascension and fire descent), heat of blood(the functional disorder of heart), heat by weakness of meridian of Yin is found a lot in Dam, Bird and Shin Type. Limb sweat caused by unspread energy of liver is found a lot in Horse Type. Palm sweat is found a lot in Bird or Yangmyeong Type. Sole sweat is found a lot in Fish or Taeum Type. Jeokbokryung-tang was good especially for type limb hyperhidrosis falling under the shape of the small intestines heat which conforms to the person having a short perpendicular furrow of the upper lip or lifted upper lip. Palmul-tang was good for type limb hyperhidrosis tending to having leaking liquid and humor because of the disorder of transfer of Jung, Ki, Shin, Hyul. Dossipyungwi-san and Hyangsapyungwi-san were good for type limb hyperhidrosis caused by stomach heat by food accumulation and Ki depression.

Key words : hyperhidrosis, limb, Hyungsang, Jeokbokryung-tang, Palmul-tang

서론

汗은 인체 津液의 일부로서, 인체의 땀이 나는 形態와 部位로써 臟腑의 病的인 사항과 疾病의 예후를 나타내는 중요한 현상으로 관찰하였다¹⁾.

특히 『난경』에 “腎은 五液을 주관하며 津액을 五臟으로 나누어 보내는데, 心에 들어가면 땀이 된다.”²⁾라고 하여 땀을 津액의 일부로 보았고, 또 땀과 혈은 같은 것³⁾이라고 해서, 땀과 혈은 근원이 津액을 밝혔다.

정상적인 땀은 피부호흡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기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10/01/16 · 수정 : 2010/01/31 · 채택 : 2010/02/10

1) 동의생리학 p.160

2) 대역 동의보감 p.181 腎主五液 分化五藏 入肝爲淚 入心爲汗 入脾爲涎 入肺爲涕 自入爲唾

3) 상계서 p.976 蓋血與汗異名而同類 故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온이 높거나 운동이나 과도한 노동 및 정신적 긴장 등으로 체온이 상승된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난다면 病理的 發汗으로 보며, 自汗, 盜汗, 頭汗, 手足汗, 心汗, 陰汗 등이 여기에 속한다.⁴⁾

신체의 체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발한 작용과는 달리 감정자극, 음식자극, 열자극, 혹은 기타자극으로 전신 혹은 안면부, 손발바닥, 겨드랑이, 흉부 등의 국소적 부위에 지나치게 땀의 분비가 많은 경우를 다한증(hyperhidrosis)이라 하며, 그 중에도 손발바닥에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를 수족다한증(手足汗)이라 한다.

한편 지산은 “남녀에 따른 땀의 有無 차이점”⁷⁾과 “계절에 따른 땀의 有無 차이점”⁸⁾을 설명하여 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밝혔다. 또 “땀은 精氣神血의 不和에 의해서 난다”⁹⁾하였으며, “수족에서 땀이 나는 것은 정기신혈의 운행이 되지 않아서 진액이 새는 것이다.”¹⁰⁾, “수족에서 땀이 나는 것은 스스로 습을 배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¹¹⁾라고 하여서 手足汗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지구 온도의 상승과 과도한 경쟁사회의 생활 및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火가 쉽게 動하여, 전신적 또는 부분적으로 과도한 땀 특히 手足多汗症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역대 문헌을 통하여 원인을 고찰하였고, 이를 형상의학적 관점으로 입상에 활용한 바, 手足汗의 변증을 통해 잘 치료된 사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땀의 개요

땀은 皮下에 존재하는 汗腺에서 분비되고 또한 皮膚毛孔을 통하여 배출되는 인체의 중요한 생리현상의 하나이다.

한의학에서 땀은 津液의 일부로서, 『난경』에 “腎이 주관하는 五液이 心에 들어가면 땀이 된다.”¹²⁾고 하였고, 또 “腠理가 열려 땀이 촉촉하게 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津이라고 한다, 津脫은 腠理가 열려 땀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¹³⁾라고 하여 땀이 인체의 생리기능을 담당하는 진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血은 땀과 이름은 달라도 같은 것이어서, 피를 흘리면 땀이 없어지고 땀을 흘리면 피가 없어진다.”¹⁴⁾고 하였고, “침으로 찔러 피를 내는 것은 땀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¹⁵⁾라고 病理

的 發汗은 인체 내외의 병적인 이유로 땀이 나는 경우로서 自汗 盜汗 頭汗 手足汗 心汗 陰汗 등이 여기에 속한다.

땀의 발생기전은 『내경』에 “陽이 陰分에 들어가면 땀이 난다”¹⁶⁾고 하였고, 『내경』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胃에서 땀이 나오고, 놀라서 精이 빠져나가면 心에서 땀이 나오며, 무거운 것을 들고 먼 길을 가면 腎에서 땀이 나오고, 빨리 달리거나 두려워하면 肝에서 땀이 나오며, 몸을 움직여 힘들게 일하면 脾에서 땀이 나온다.”¹⁷⁾고 하여 과도한 음식섭취, 심리적 동요, 지나친 육체적 활동으로 인하여 땀이 발생하며, [한다.]

“땀이란 心의 액이다. 心이 움직이면 두려워하며 땀이 난다”¹⁸⁾하고 “心은 君火이고 脾胃는 土에 속하니 濕과 熱이 맞부딪쳐 땀이 난다.”¹⁹⁾하여 心의 정신작용으로 땀이 나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으며, 火의 장기인 심장이 음혈인 진액을 땀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陽氣가 陰液을 혼중하여 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영추』에서 “衛氣는 분육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충실하게 하며, 腠理를 살찌우고 개함을 담당한다.”²⁰⁾고 하여서 衛氣가 腠理의 개함에 관여함을 말하고, 『영추』에서 “腠理가 열려 땀이 촉촉하게 난다.”²¹⁾고 하여 腠理의 發泄로 땀이 나는 것을 말하여서 衛氣가 腠理의 개함을 조절하여 玄府²²⁾를 통해서 땀을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땀의 배출은 津液에 대한 心의 작용과, 衛氣의 주리 개합조절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체의 생리적 기능이 이루어고 때론 병리적 상태로 빠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추』에서 “날씨가 추운데 옷이 얇으면 오줌이 되고, 날씨가 더운데 옷이 두꺼우면 땀이 된다.”고 하여 기온이나 체온이 하강하면 인체에서 소변량이 증가하고 기온과 체온이 상승하면 인체에서는 땀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며,²³⁾ 『동의보감』에서 “여름철에는 갈증이 나지만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변이 적고, 겨울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소변이 많다”²⁴⁾고 하여서 계절과 환경의 변화에 인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生理機能을 담당하는 津液의 일부분으로 인체의 調節기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땀의 원인은 『동의보감』에서는 ① 땀이란 心의 액이니, 心이 움직이면 두려워하며 땀이 나온다. ② 心은 君火이고 脾胃는 土에 속한다. 濕과 熱이 맞부딪쳐 땀이 난다. ③ 『내경』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胃에서 땀이 나오고, 놀라서 精이 빠져나가면 心에서 땀이 나오며, 무거운 것을 들고 먼 길을 가면 腎에서 땀이 나오고, 빨리 달리거나 두려워하면 肝에서 땀이 나오며, 몸을 움직여 힘들게 일하면 脾에서 땀이 나온다.”고 하였다. ④ 衛氣

4) 하루 중 시간변화에 따른 汗出의 기전에 대한 연구 p.273

5) 다한증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p.338

6) 고 박인규 선생의 호이다. 지산은 형상의학을 주창하셨다. 1927-2000.

7) 지산선생 임상학특강 V p.10

8) 지산선생 임상학특강 V p.10

9)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Ⅲ p.169

10)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Ⅳ p.308

11)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Ⅱ p.175

12) 대역 동의보감 p.181 腎主五液 分化五藏 入肝爲淚 入心爲汗 入脾爲涎 入肺爲涕 自入爲唾

13) 상계서 p.181

14) 상계서 p.976 蓋血與汗異名而同類 故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15) 상계서 p.629 火鬱則發之 砭刺出血即汗之義也

16) 상계서 p.182 陽加於陰 謂之汗

17) 상계서 p.182

18) 상계서 p.182 汗者 心之液 心動則惕然而汗出<醫鑑>

19) 상계서 p.182

20) 상계서 p.60 衛氣者 所以溫分肉 而充皮膚 肥腠理 而司開闔 故衛氣溫則形分足矣

21) 상계서 p.181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津脫者 腠理開 汗大泄

22) 상계서 p.725 腠理亦曰玄府 玄府者 汗孔也

23) “天寒衣薄則爲溺 天熱厚衣則爲汗” 정교황제내경영추 p.183

24) 대역 동의보감 p.1444 凡夏月渴而汗出多 則小便少 冬月不汗 故小便多 皆平人之常也<聖惠>

가 虛하면 땀이 많고, 營血이 虛하면 땀이 없다. ⑤ 風이 氣를 흘기에 風病은 땀이 많다. ⑥ 痰證에 땀이 많다. ⑦ 火氣가 끓어오르면 胃속의 濕이 땀이 되어 나온다.²⁵⁾ 등으로 분류 하였다. 땀의 분류는 『동의보감』에서는 땀이 나는 부위별로 나누어 頭汗, 心汗, 手足汗, 陰汗 등으로 구분하였고, 땀이 나오는 양상으로는 自汗과 盜汗으로 나누었다. 또 원인별로는 火로 인한 血汗, 황달로 인한 黃汗, 飲酒傷風으로 인한 漏風證, 眞陽虛로 인한 亡陽證, 풍한으로 인한 傷風證 등²⁶⁾으로 나누었다.

한편 지산은 “精氣神血의 不和로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이 나타난다. 땀은 津液의 일부이니, 땀은 精氣神血의 不和에 의해서 나는데, 사우나탕에서 땀을 강제로 빼면 정기신혈의 形에 손상이 온다.”²⁷⁾고 하면서 “운동할 때 頭에만 땀이 난다면 精이 응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땀이 썩먹은 결과로 생기는 증상이니 섭생을 잘해야 한다.”²⁸⁾고 하였고 또 “수족에서 땀이 나는 것은 정기신혈의 운행이 되지 않아서 진액이 새는 것이다.”²⁹⁾라고 하여서 정기신혈의 운행이 잘 못 될 때 진액이 새어서 땀이 난다고 하였다.

또 “남자는 몸이 차고 여자는 몸이 더워야한다. 남자가 몸이 차다는 것은 땀을 흘린다는 것인데, 이유는 남자는 陽이므로 밖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風寒暑濕燥火 특히 風을 排除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것이다. 여자는 몸이 덥다는 것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자는 陰이므로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므로 땀이 나지 않는다.”³⁰⁾고 하여서 남녀에 따른 땀의 有無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최³¹⁾는 추가로 여자는 陰血을 用事하므로 요즘 현대인들에게 유행하는 점질방이나 사우나, 혹은 에어로빅, 과도한 운동 등으로 땀을 과도히 내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국 피를 말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조기폐경이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 “주리가 열리는 봄, 여름에는 땀이 나는 것이 정상이고 주리가 닫히는 가을, 겨울에 땀이 나는 것은 비정상”³²⁾이라 하여서 계절에 따른 기운의 승강 변화에 따른 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눈썹이 진한 것은 春夏之象으로 血氣가 올라오므로 땀이 나야 정상”³³⁾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땀은 생리적인 땀, 병리적인 땀으로 나누지만 “火鬱을 발산시킨다는 것은 땀을 내어 흘리는 것”³⁴⁾이라 하여 울증을 풀어 영위를 소통시켜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發汗을 이용하였으며, 『동의보감』의 汗法, 상한표증, 중풍표증, 사시한상온역, 사시상풍상한역려, 편고, 상한양증, 久泄, 음양동결흉, 내상발반, 은진, 각기의 치료법, 주상, 학질의 치료법 등은 땀을 내어 치료하는 경우이다.

2. 수족다한증

진신 혹은 안면부, 손발바닥, 겨드랑이 흉부 등의 국소적 부위에 지나치게 땀의 분비가 많은 경우를 다한증(hyperhidrosis)이라 한다.³⁵⁾

그 중에도 손발바닥에 땀이 과다하게 흐르는 경우를 수족다한증(手足汗)이라 한다.

다한증으로 내원한 환자 중에 手足汗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가 대부분이었는데 사회진출을 준비하거나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手足汗으로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으며, 심한 發汗현상으로 사회적 適應과 직업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³⁶⁾고 하였으며, 대만의 역학조사에서는 수장부 다한증(palmar hyperhidrosis)의 경우 15세에서 30세까지의 인구에서 300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하며 가족력은 약 12.5% 가량으로 나타난다³⁷⁾고 하여, 우리 주변에 30대 이하이면서 手掌이나 手足掌의 땀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수족의 기능과 구조

수족은 成體의 根本이며, 變化의 기틀이 되며, 諸陽의 근본이 되고, 五臟의 싹이 된다.³⁸⁾ 『동의보감』에서 “胃 속이 차면 어제혈 부위의 낙맥이 대부분 푸르고, 胃 속에 열이 있으면 어제혈 부위의 낙맥이 벌겋다.”³⁹⁾하였고 “脾에 병이 생겨 胃의 진액을 운행시키지 못하면 四肢가 수곡의 氣를 받지 못하여 氣가 날로 쇠약해지고 脈道가 잘 통하지 못한다. …… 四肢를 쓰지 못한다.”⁴⁰⁾라고 하여서 四肢는 脾胃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또 수족의 경락 유주를 보면 手足背는 수족의 삼양경이 흐르고, 手足掌은 수족의 삼음경이 흐른다.⁴¹⁾

4. 수족다한증의 문헌 고찰

手足汗에 대하여 『內經』에는 언급이 없었고 『傷寒論』부터 手足汗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이를 설명한 문헌 위주로 살펴 보았다.

1) 傷寒論

“陽明病에 만약 中寒하면, 능히 먹지 못하고, 소변이 不利하며, 손과 발에 축축하게 땀이 나니, 이것은 癰瘕를 만들 징조이다.”⁴²⁾라고 하여서 胃中이 冷하여 水와 穀이 분별되지 못하기에 진액이 外泄하여 手足汗이 생긴다고 하였다.

“陽明病에 손발이 축축하게 땀이 나는 者는 이것은 대변이 이미 굳은 것이니 大承氣湯이 주치한다.”⁴³⁾고 하여서 裡熱이 蒸液하여 손발에 땀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二陽이 併病하였다가 太陽證은 罷하고 다만 潮熱을 發하여

25) 상계서 p.182

26) 상계서 pp. 183-190

27)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Ⅲ p.169

28)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Ⅰ p.251

29)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Ⅳ p.308

30)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Ⅴ p.10

31) 최영성,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pp.852-860

32)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Ⅴ p.10

33)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Ⅰ p.328, “눈썹이 진한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으로 경락의 혈기가 성한 것이다” 대역동의보감 p.804

34) 대역 동의보감 p.950 火鬱發之 謂汗之 令其疎散也

35) 다한증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p.338

36) 상계서 p. 340

37)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다한증 환자의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p.2

38) 중풍과 유사한 四肢不用에 대한 형상의학적 치료 p.4

39) 대역 동의보감 p.774

40) 상계서 p.774

41) 경혈학총서 p.39 피부의 분구도

42) 傷寒論譯註 p.149

43) 上擲書 p.156

수족에 皸皸하게 땀이 나고 대변이 어려우면서 讒語하는 자는 大承氣湯이 적당하다.⁴⁴⁾고 하여 이것도 裡熱이 蒸發하여 손발에 땀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傷寒明理論

“상한에 手足汗出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사지는 모든 陽의 근본이고 胃가 사지를 주관하므로 손발에 땀이 나는 것은 陽明의 증상이다. 陽經의 邪熱이 陽明으로 옮겨가면 손발에 땀이 난다. 陽明은 진액의 主이므로 병이 들면 自汗이 나는 것이니, 自汗出하는 경우가 있고, 머리에만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 손발에만 땀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모두 陽明에 속한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온몸에 땀이 나는 것은 열월(熱越)이라고 하니 이는 熱이 外達한 것이고, 머리에만 땀이 나는 것은 열이 發越하지 못하고 熱氣가 上達한 것이고, 손발에만 땀이 나는 것은 熱이 胃에 모인 것이니 진액이 旁達한 것이다.”

“熱이 胃에 모여서 손발에 땀이 나고, 寒이 胃에 모여도 손발에 땀이 나는데, 이는 대변이 딱딱하면 胃熱로 인해 손발에 땀이 나고 대변이 처음에는 딱딱하다가 뒤에 묽은 변을 보면 胃寒으로 손발에 땀이 나는 것으로 보았다.”⁴⁵⁾라고 하여서 胃에 熱이나 寒이 있으면 손발에 땀이 난다고 하여, 全身, 머리 및 손발 각각에 땀이 나는 기전을 설명하였다. 全身에 自汗이 나오는 것은 熱越이라고 하니 이것은 熱이 밖으로 도달하는 것이며, 머리에 땀나는 것은 體표로 쉽게 펼쳐질 수 없는 속에 뭉친 熱이 있어서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이고, 수족에 땀이 나오는 것은 熱이 胃에 모여서 진액이 옆으로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東醫寶鑑

『동의보감·진액』에서는 땀의 원인을 습열이라고 정의하고, 전신적인 땀을 자한과 도한으로 분류하고, 국소부위의 땀은 頭汗, 手足汗, 心汗, 陰汗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중 手足汗에 대하여 “손발에서 땀이 나는 이유는 진액이 胃에서 밖으로 퍼지므로 손발에 도달하면 저절로 땀이 나는 것이다. 胃에 熱이 몰려 진액을 밀어내어 땀이 나오는 것은 陽明證이다. 대시호탕으로 설사를 시켜야 한다.” “손발에서 땀이 날 때 황금 황련 황백을 보하는 약과 함께 썼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다. 나중에 팔물탕에 반하 복령을 넣어 군약으로 삼고, 백부자 천오를 넣어 좌약 사약으로 삼아 복용하게 하니 땀이 곧 멎었다.”⁴⁶⁾라고 하여서 胃熱로 인한 手足汗과 氣血의 순환장애로 인한 手足汗을 말하였다.

4) 醫宗金鑑⁴⁷⁾

局部汗出과 관련하여 頭汗과 手足汗을 설명하고 있다. 手足汗은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熱이 胃에 모여서 그 진액을 蒸騰하여 四肢로 傍達한 경우와 中寒하여 胃陽土가 虛하므로 脾가 約束하지 못하여 진액이 四肢로 橫溢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5) 張氏醫通⁴⁸⁾

局部汗出에 대하여 頭汗, 手足汗, 陰汗, 半身汗으로 분류하고 있다. 手足汗은 脾胃의 濕熱로 사지로 傍達하여 생기는데, 熱하면 이진탕에 황련 백작약을 가해 쓰고, 冷하면 이중탕에 오매를 가해 쓰고, 虛弱하면 십전대보탕에 천궁을 빼고 오미자를 가해서 쓴다고 하였다.

6) 中醫診斷學⁴⁹⁾

局部汗出에 대하여 半身汗, 頭汗, 手足汗, 心胸汗으로 분류하고 있다. 手足汗은 대부분 그 病變이 脾에 있는데, 脾胃濕熱로 진액이 鬱蒸하여 사방으로 外泄할 수 있고, 脾氣가 虛衰하여 운화를 失職하면 四肢에서 汗出할 수 있으며, 陰虛陽盛하면 陰經의 虛熱로 진액을 蒸騰하여 수족에 汗出할 수 있다고 하였다.

7) 中醫內科學⁵⁰⁾

局部汗出에 대하여 半身汗, 頭汗, 手足汗으로 분류하고 있다. 手足汗은 환자의 手心과 足心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땀이 나는 것으로 그 원인은 대개 脾胃와 관련이 있는데, 脾는 사지를 주관하고 手足心에는 陰經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虛熱이나 中焦의 濕熱이 陰經을 따라가서 手足心을 熏蒸하면 수족에 汗出하게 되니 陰虛나 中焦濕熱로 정리할 수 있다.

8) 中醫症狀鑑別診斷學⁵¹⁾

局部汗出을 半身汗, 頭汗, 手足汗, 心汗, 腋汗으로 분류하고 있다.

手足汗은 대개가 濕熱에 의한 증상이고, 氣陰兩虛의 증상도 있으나 주로 虛證의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만약 오래도록 치료하지 않아서 氣血俱虛의 증상이 나타나면 마땅히 調補氣血해야 하는데, 脾胃濕熱, 脾胃氣虛, 脾胃陰虛의 證으로 개괄할 수 있다. 勞倦으로 인해 脾를 상해서 健運에 失調되거나 혹은 濕邪가 脾胃에 侵襲해서 濕이 脾胃를 막아 鬱而化火되고 濕熱이 熏蒸하여 脾中の 진액이 四肢로 傍達하여 四肢에 땀이 날 때는 清熱燥濕和中하고, 處方은 連朴飲, 胃苓湯을 가감한다. 飢飽, 勞倦으로 인한 脾胃之氣의 손상으로 운화가 失調되어 진액이 수족으로 傍達할 때는 補益脾氣는데, 처방은 삼령백출산을 가감한다. 주로 熱病傷陰이나, 辛熱하고 맛이 진한 음식을 즐김으로 熱이 쌓여서 陰을 상하여, 陰虛熱이 스스로 안에서 生하여, 陰液을 어지럽히고, 진액을 迫하여, 四肢로 外泄되어 手足汗出이 보일 때는 마땅히 滋養胃陰해야하며, 처방은 사삼맥문동탕을 가감한다.

9) 人體排出物異常證診斷治療學⁵²⁾

局部汗出에 대하여 半身汗, 頭汗, 手足汗, 心汗, 腋汗으로 분류하고 있다.

手足에만 땀이 나는 것으로 서양의학에서는 手足局限性 汗出異常症에 해당하며, 자율신경기능이상으로 야기된 것이다. 脾胃濕熱, 脾胃氣虛, 脾胃陰虛로 辨證分型할 수 있다. 勞倦傷脾하여 운화기능을 失調하거나, 濕邪가 脾胃에 侵襲하여 저체되고 鬱而化熱하여 濕熱이 熏蒸하니 胃中津液이 四肢로 퍼져 手足汗出

44) 上揭書 p.167

45) 傷寒明理論 p.33 : 何以使之然也 若一身自汗出者 謂之熱越이니 是熱外達者也 但頭汗出者 是熱不得越 而熱氣上達者也 及手足汗出者 爲熱聚於胃 是津液之傍達也라.

46) 대역 동의보감 p.188

47) 醫宗金鑑 p.299

48) 張氏醫通 pp.459-463

49) 中醫진단학 pp.159-160

50) 中醫내과학 pp.9-10

51) 中醫症狀鑑別診斷學 pp.26-30

52) 人體排出物異常證診斷治療學 pp.90-108

할 때는 淸熱燥濕和中하는데, 治方은 連朴飲, 胃苓湯을 가감한다. 飢飽, 勞倦으로 인한 脾胃之氣의 손상으로 運化가 失調되어 津液을 散布할 수 없고 수족으로만 津液이 가서 手足汗出할 때는 補益脾氣하고 治方은 삼령백출산을 가감한다. 熱病에 陰을 傷하였거나 辛熱厚味한 음식을 먹어 蓄熱이 陰을 傷하여 陰虛하니 內熱이 生하여 陰液을 四肢로 外泄하게하니 手足汗出할 때는 滋養胃陰하고 治方은 사삼맥문동탕을 가감한다고 하였다.

10) 中醫臨床大全⁵³⁾

局部汗出에 대하여 半身汗, 頭汗, 手足汗, 心汗, 腋汗, 陰汗으로 분류하고 있다. 手足汗은 脾胃濕熱, 中陽不足, 陰虧血虛로 辨證分型할 수 있다. 脾胃濕熱에는 淸熱燥濕하는데, 輕症에는 二陳加黃連芍藥湯, 中症에는 王氏連朴飲, 重症에는 淸脾飲을 쓰고. 中陽不足에는 益氣溫中하는데, 輕症에는 正元飲, 中症에는 附子理中湯, 重症에는 溫中補脾湯을. 陰虧血虛에는 滋陰養血하는데, 輕症에는 胡麻丸, 中症에는 加減生脈散, 重症에는 益陰湯을 쓴다고 하였다.

11) 證治叢書⁵⁴⁾

국부한출에 대하여 頭額汗, 頸汗, 腋汗, 手足汗, 陰部汗, 上身汗, 心胸汗, 下體汗, 偏沮로 분류하였다.

수족한을 脾胃에 원인이 있다면서, 心腎의 陰虛하고 陽이 偏亢하거나, 心腎의 陽虛하고 衛氣가 失攝하면 頭足에 땀이 난다고 하였다. 오래된 失血의 병으로 陰血이 傷하면 心肝의 陰血이 虧虛해져서 手汗이 난다 하였다. 또 肝氣不舒하여 陽氣가 四末에 도달하지 못하면 手足汗出한다 하여 舒肝解鬱 重鎮安神하는 柴胡疏肝散加減을 사용하였고, 肺經에 熱이 많고 肺陰이 수렴하지 못하면 手背에 땀이 난다고 하였다.

또 手足汗出을 양상에 따라서 분류하였는데, 手足汗出하면서 手足掌이 번열하면 血虛 陰虛에 속하고, 手足汗出하면서 수족이 따뜻하지 않으면 氣虛에 속하고, 手足汗이 많으면서 끈끈하면 濕熱에 속한다고 하였다.

12) 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⁵⁵⁾

局部汗出은 소속장부와 경락의 유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五志가 火로 변하여 心火가 亢盛되면 氣가 盛하고 火가 動해서 津液을 밖으로 넘치게 하여 手足汗이 된다고 하여 치료법으로 淸泄心火하기 위해 淸心蓮子飲加減을 사용하였다.

13) 舍岩鍼法病證論⁵⁶⁾

手足汗은 상한시 陽明熱로 인한 경우와 정서적 긴장에 의해서 초래되는 경우로 나누었다. 자율신경의 실조에 의한 것으로서 心虛나 그에서 기인하는 上衝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난치이며, 사려과다로 인한 營血의 휴손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傷寒論』에서는 胃中이 虛冷하여 水와 穀을 分別하지 못하여 津液이 外泄하여 手足汗이 생기는 것과 陽明病의 裡熱이 蒸液하여 손발에 땀이 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傷寒明理論』에서는 胃가 사지를 주관하므로 손발에 땀이 나는

것은 陽明의 증상이고, 胃에 熱이나 寒이 있으면 손발에 땀이 난다면서, 熱越과 不熱越을 가지고 전신과 머리와 손발 각각에 땀이 나는 기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胃에 熱이 몰려 津液을 밀어내어 땀이 나오는 것과 기혈이 허손하여 八物湯에 반하 복령 백부자 천오를 넣어 쓰는 증에 대해 설명하였고, 『醫宗金鑑』에서는 胃熱로 津液을 蒸騰하여 四肢로 傍達한 경우와 中寒하여 胃陽土가 虛하므로 脾가 約束하지 못하여 津液이 四肢로 橫溢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며, 『張氏醫通』手足汗은 脾胃濕熱로 사지로 傍達하여 생기는데, 熱하면 이진탕가 황련 백작약, 冷하면 이증탕가 오매, 虛弱하면 십전대보탕가 천궁 가 오미자를 쓴다고 하였다.

『中醫診斷學』에서는 手足汗은 脾胃濕熱로 津液이 鬱蒸하여 사망으로 外泄하고, 脾氣가 虛衰하여 運化를 失職하면 四肢에서 汗出할 수 있으며, 陰虛陽盛하면 陰經의 虛熱로 津液을 蒸騰하여 수족에 汗出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中醫內科學』에서는 手足心에는 陰經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虛熱이나 中焦의 濕熱이 陰經을 따라가서 手足心을 熏蒸하면 수족에 汗出하게 된다고 하였다. 『中醫症狀鑑別診斷學』에서는 手足汗은 脾胃濕熱, 脾胃氣虛, 脾胃陰虛의 證으로 개괄하였는데, 脾胃濕熱이 熏蒸하여 脾中의 津液이 四肢로 傍達하여 四肢에 땀이 날 때는 淸熱燥濕和中하고, 脾胃氣虛로 運化가 失調되어 津液이 수족으로 旁達할 때는 補益脾氣하였다. 陰虛熱이 생겨 陰液을 어지럽히고 압박하여 四肢로 手足汗出이 보일 때는 마땅히 滋養胃陰하였다. 『人體排出物異常證診斷治療學』에서는 위와 같이 脾胃濕熱, 脾胃氣虛, 脾胃陰虛의 證으로 분류하였고, 『中醫臨床大全』에서는 脾胃濕熱, 中陽不足, 陰虧血虛로 분류하였다.

『證治叢書』에서는 心腎陰虛하여 陽이 偏亢하거나 心腎陽虛하여 衛氣가 失攝하면 頭足에 땀이 난다고 하였다, 失血하는 오래된 병에 陰血이 耗損되면 心肝의 음혈이 虧虛해져서 手汗이 난다 하였으며, 肝氣不舒하여 陽氣가 四末에 이르지 못하면 手足汗出한다고 하여서 手掌汗, 頭足汗, 手足汗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고, 『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에서는 局部汗出은 소속장부 와 경락의 유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五志가 火로 변하여 心火가 亢盛되면 氣가 盛하고 火가 動해서 津液을 밖으로 넘치게 하여 手足汗이 된다고 하였다.

『舍岩鍼法病證論』에서는 心虛와 營血의 휴손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정⁵⁷⁾은 手掌과 足掌의 다한증은 대부분 동시에 나타나므로 手足少陰經의 기능(水火升降)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하여 수족다한증을 手足少陰經의 기능과 연결을 시켰으며, 이⁵⁸⁾는 땀은 心和 脾의 기능과 관계되는데 心熱에 편중된 경우에 수족다한증이 빈발하고, 脾濕에 편중될 경우에 전신다한증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류⁵⁹⁾는 손발

53) 中醫臨床大全 pp.435-438

54) 證治叢書 pp.151-180

55) 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 pp.1493-1494

56) 舍岩鍼法病證論 p.201

57) 정희재, 다한증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 手掌部의 반응은 心의 기능(정신적 기능, 혈액순환 기능)과 胃熱에 의하므로 手掌의 다한증상은 心和 胃의 상태와 관계되며 足掌의 다한증상은 腎의 기능(命門火, 腎陰)과 관계되며, 실제적으로 手掌과 足掌의 다한증은 대부분 동시에 나타나므로 手足少陰經의 기능(水火升降)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여서, 수족다한증을 手足少陰經의 기능과 연결을 시켰다.

58) 이진영,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다한증 환자의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p.9

의 땀은 결국 血分에 熱이 울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證은 陽明의 熱이 胃腸壁의 血分으로 들어간 承氣湯證, 다음은 胸膈의 氣分熱이 심장으로 들어간 導赤降氣湯證, 가장 病程이 오래되고 病位가 깊어 虛證으로 된 것은 加減清宮湯證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다시 요약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古代에는 陽明證이 手足汗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는데,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心臟, 心腎經絡의 이상을 手足汗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점차로 火를 성하게 하고 陰血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手足部, 手部, 足部の 원인을 각각 정리하면, 手足汗은 胃熱(陽明熱), 胃虛冷, 脾胃濕熱, 脾胃氣虛, 脾胃陰虛, 陰經의 虛熱, 肝氣不舒, 心火亢盛, 心虛, 營血虧損, 手足少陰經의 기능이 상(水升火降이상), 血分의 熱(心기능 이상) 등이 원인이다.

手掌汗은 오래된 失血의 병으로 陰血을 傷하여 心肝의 陰血이 虧虛되거나, 心의 기능(정신적 기능, 혈액순환 기능)과 胃熱에 관계된 心과 胃의 상태와 관계된다⁶⁰⁾하였으니, 手掌汗의 원인은 心肝의 陰血부족이나 心과 胃의 기능장애이다.

足掌汗은 水에 속하는 腎의 기능(命門火, 腎陰)과 관계⁶¹⁾되며, 心腎의 陰이 허하고 陽이 偏盛하거나, 心腎의 陽이 허하고 衛氣가 失攝하면 頭足에 땀이 난다고 하여, 足掌汗의 원인은 心腎, 腎의 기능장애이다.

또한 手足汗의 양상에 따라서 手足汗出하면서 手掌이 번열하면 血虛 陰虛에 속하고, 手足汗出하면서 手足이 따뜻하지 않으면 氣虛에 속하고, 手足汗이 많으면서 끈끈하면 濕熱에 속한다.

5. 수족다한증의 형상의학적 고찰

手足汗의 각각의 원인을 형상화 하면, 胃熱이나 脾胃濕熱로 인한 手足汗은 多氣多血하면서 胃의 발달로 과식할 수 있는 양명형⁶²⁾에 많고, 또 입의 발달로 잘 먹을 수 있는 어류⁶³⁾도 많다.

胃虛冷이나 脾胃氣虛로 인한 手足汗은 氣虛濕痰하기 쉬운 방광체⁶⁴⁾이거나, 氣虛나 氣鬱滯의 氣科⁶⁵⁾이거나, 脾胃의 운화기능이 떨어지는 얼굴이 넓적한 형, 얼굴이陷한 형, 안경을 쓰고,

얼굴에 기미나 때가 많이 낀 경우에 많다⁶⁶⁾.

心火亢盛, 手足少陰經의 기능실조(水升火降이상), 血分의 熱(심기능 이상), 陰經의 虛熱로 인한 手足汗은 心火가 盛하고 心血부족이 원인이므로 血虛하기 쉬운 담체⁶⁷⁾나, 火性이 강한 조류⁶⁸⁾나 신과⁶⁹⁾ 등에 많다. 즉 얼굴이 붉고, 눈 꼬리가 올라가고, 눈 주변이 발달하고, 눈썹이 미려한 경우이다.⁷⁰⁾

또 심은 소장과 表裏관계이고, 소장은 사지를 주관하는 비장과 共變관계⁷¹⁾이기도 하므로, 인중이 짧거나 들린 小腸熱의 형상⁷²⁾도 手足汗이 많다.

肝氣不舒로 인한 手足汗은 주류⁷³⁾에 많다.

手掌汗은 양명형이나 火性이 강한 조류⁷⁴⁾에 많고, 足掌汗은 신장이 발달된 어류⁷⁵⁾나 기세가 아래로 향하는 태음형⁷⁶⁾에 많다.

이들 내용을 저자는 지산선생의 형상의학적 견해를 훼손하지 않고 명칭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 1) 입의 발달로 잘 먹을 수 있는 어류 : 식욕왕성형
- 2) 기세가 아래로 향하는 태음형 : 기세침강형
- 3) 주류 : 운동과다형
- 4) 血虛하기 쉬운 담체 : 담체형
- 5) 火性이 강한 조류 : 화성형
- 6) 신과 : 정신활동 왕성형
- 7) 인중이 짧거나 들린 小腸熱의 형상 : 소장열형

6. 수족다한증의 임상례

수족다한증의 형상의학적 치료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산선생 임상학특강』의 5례 및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의 2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 2008.11월부터 2009.12월까지 치료한 저자의 임상례 6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임상례 1】 남자. 16세. 정 OO (2008.11.5 내원)

【형】 기과. 상순이 들림. 눈썹이 미려하다.

【색】 얼굴이 붉다.

【맥】 86 / 80

【증】

59) 류정아, 부위별 한출의 기전에 대한 연구 : 手足汗은 대변이 굳어지면서 생기는 陽明熱結의 證 외에 手掌皮剝離를 동반하는 導赤降氣湯證과 병이 더 깊어진 加減清宮湯證 등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또 손발의 땀은 결국 血分에 熱이 울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證은 陽明의 熱이 胃腸壁의 血分으로 들어간 承氣湯證, 다음은 胸膈의 氣分熱이 심장으로 들어간 導赤降氣湯證, 가장 病程이 오래되고 病位가 깊어 虛證으로 된 것은 加減清宮湯證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60) 정희재, 다한증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p.340

61) 상계서 p.340

62)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pp.8852-8860 양명형은 다기다혈하고, 얼굴이 돌출되며 위장과 관련된 부위 즉 볼살, 유방, 복부 등에 살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63) 지산형상의안 p.27, 『노소문답 역학원리강화』에서는 사람을 동물의 특성에 따라 어류, 조류, 주류, 갑류로 분류하고, 이목구비의 발달 상태로 보면, 어류는 입이 발달한 사람, 조류는 눈이 발달한 사람, 주류는 코가 발달한 사람, 갑류는 귀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64)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pp.8852-8860 방광체는 근골격에 비하여 기육이 발달한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허한 경우가 많다.

65) 상계서 p.7 기과는 얼굴이 사각형, 마름모형으로 생겨 각이 진 얼굴의 사람으로 기의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사람을 의미한다.

66) 지산형상의안 p.740 담체는 근골이 발달하고 살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혈이 허하면 육이 허하다.

67)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pp.852-860

68) 지산형상의안 p.8 『노소문답 역학원리강화』에 조류는 눈이 발달하고 신장이 발달하여 화성이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

69)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고찰 pp.852-860, 신과는 얼굴의 형태가 역삼각형으로 생긴 사람으로 정신활동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왕성한 사람을 의미한다.

70) 지산형상의안 p.1351

71) 대역 동의보감 p.230 脾與小腸相通 脾病宜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72) 지산형상의안 p.1379 『동의보감·소장』에 소장이 짧으면 인중이 짧다고 하였다.

73) 상계서 p.8 『노소문답 역학원리강화』에 주류는 코가 길게 발달되고 입구리가 길게 발달하여 간이 발달된 사람을 의미한다.

74) 상계서 p.8

75) 상계서 p.8 『노소문답 역학원리강화』에 어류는 입이 크고 엉덩이와 허리가 발달하여 신장이 발달된 사람을 의미한다.

76)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pp.852-860 태음형은 사람의 육경 발달 상태를 눈과 코의 기세로 판단하는 분류 방법으로 눈이 처지고 코도 아래로 내려먹은 사람을 말한다.

① 手足掌에 땀이 많다. 시험 볼 때 긴장하면, 물건을 잡을 때 심해진다.

② 아침에 복통이 있다.

【치료 및 경과】

2008.11.05 팔물탕가미방 한제 투여.

2009.04.11 맥 60/62, 조금 나은 느낌 다시 팔물탕가미방 한제 투여.

2009.05.09 맥 66/64, 조금 나은 느낌, 자주 심하게 나지는 않는다. 적복령탕 70 한제 투여.

2009.05.30 많이 호전되었다. 다시 적복령탕 한제 투여.

【고찰】

초진시 기혈구허로 판단하여 팔물탕가미방을 투여하였는데 조금 좋다고 하였다. 다시 팔물탕가미방을 투여했는데 본인은 조금 낫다고 하나, 미진함이 있어 자세히 관찰하니 인중이 짧으면서 들린 소장열의 형상이 있어서 적복령탕을 투여하였다. 적복령탕을 복용한 후에 빠른 호전을 볼 수 있었다.

【임상례 2】 남자. 24세. 김 OO (2009.10.30 내원)

【형】 기과. 안경

【맥】 76 / 86

【증】

① 수족장에 땀이 많다. 고3 때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시험공부 중이라 심하다. 손바닥이 붉고 열감이 있다.

② 평소에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③ 명치부 압통이 있다.

【과거 병력】 : 성장통(슬관절통)이 심했다.

【치료 및 경과】

2009.10.30 적복령탕을 한제 투여.

2009.11.30 맥 66/76. 수장부 땀과 열감이 줄어들어서, 다시 적복령탕을 투여하였다.

【고찰】

소장열의 형상은 아니지만, 구내염, 손바닥 붉고 열감, 小便數, 명치통 등의 증상이 心, 小腸의 열로 인한 것으로 적복령탕을 투여하였는데 손바닥의 땀만 감소되면서 좋아졌고, 발바닥의 땀은 변화가 없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手掌에는 心經과 心包經이 유주하므로 心小腸熱로 수장에 땀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례 3】 여자. 6세. 현 OO (2009.09.5 내원)

【형】 상순이 들렸다.

【증】

① 돌 때부터 수족장에 땀이 심하다.

②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③ 10일 중에서 8-9일은 땀이 심하게 난다.

【치료 및 경과】

2009.09.05 적복령탕을 한제 투여.

2009.09.28 호전된다고 하여서 다시 한제 투여.

2009.11.03 내원하여 손바닥이 땀이 없고 너무 건조해져 따

갑다고 호소함.

【고찰】

상순이 들린 소장열의 형상을 보고 적복령탕을 투여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너무 소장열을 식히니 소장이 主하는 液의 부족으로 손바닥의 땀은 그쳤지만 건조해져서 따가운 감을 호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례 4】 남자. 36세. 이 OO (2009.09.5 내원)

【형색】 기과. 양명형. 눈썹이 미려

【맥】 66/ 64

【증】

① 전신에 땀이 많다. 도한도 있다. 수족장에 땀이 많다.

② 신경이 예민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이 있다.

③ 식욕은 왕성하고, 소화도 잘되며, 대소변은 이상이 없다.

④ 구내염이 잘 생기고, 헛바늘이 잘 뜬다.

【치료 및 경과】

2009.09.05 적복령탕을 한제 투여함.

2009.09.24 전신적인 땀과 수족장의 땀이 감소하여 다시 적복령탕을 한제 투여함.

【고찰】

양명형으로 양명열도 있겠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구내염과 헛바늘 뜸 등 여러 증상이 심소장의 열로 인한 것이 많아서 적복령탕을 투여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땀이 감소하였다.

【임상례 5】 여자. 27세. 성 OO (2009.12.5 내원)

【형】 방광체. 코가 내렸고 인중이 짧고 상순이 들렸다.

【맥】 66/ 60

【증】

① 수족장에 땀이 많다. 양 겨드랑이 아래에 땀이 많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심해졌다.

② 몸이 무겁고 피로하다.

③ 신경이 예민하여 잘 긴장하고 정충증도 있다.

【치료 및 경과】

2009.12.05 적복령탕을 한제 투여.

2009.12.26 수장의 땀이 많이 감소하여 다시 적복령탕을 한제 투여.

【고찰】

소장열의 형상이 있어 적복령탕을 투여하니 호전 반응이 빨랐다.

【임상례 6】 여자. 27세. 허 OO (2009.06.26 내원)

【형】 인중이 짧다. 눈 밑이 붉다.

【맥】 58/ 56

【증】

① 수족장에 땀이 많다. 액하부에 땀이 많다.

② 인중과 오금에 땀이 많다.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긴장하면 심하다.

③ 소화가 안 되고, 식사를 하면 위완부가 답답하고 아프다.

77) 赤茯苓湯 지산형상의안 p.1379

【치료 및 경과】 적복령탕 투여

【고찰】

인증이 짧은 것이 소장열증이고, 특히 인증부의 땀은 소장열로 인하므로 적복령탕을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임상례 7】 78) 再診으로 온 19歲된 男子 아이

【색】 鼻柱의 色이 白色이고 口唇이 붉다.

【맥】 70/ 70

【증】

① 15歲 때에 膝痛이 있었으며, 1994년 來院시에는 홍반성 낭창(洋方病名)이 있어 洋藥治療를 하고 있었다.

② 現在는 손과 발바닥에서 땀이 많이 나고

③ 오른쪽 脇痛이 있고 腸鳴이 있으며,

④ 내쉬는 숨은 많은데 들이쉬는 숨은 적고(少氣)

⑤ 입이 마른다고 하고,

⑥ 성질이 급한 편이며 寒熱往來가 있다. 大便은 하루에 2~3회 程度 본다

【치료 및 경과】 八物湯 加 半夏·白茯苓 各 2錢, 白附子·川烏 各 5分⁷⁹⁾

【고찰】

여기에서 八物湯은 굳히는 藥으로 作用한다.

心臟은 本來 濕을 除去시켜서 굳히는 作用을 하는데, 手足에서 땀이 나는 것은 스스로 濕을 排除하려는 勞力의 一環으로 본다.

【임상례 8】 80) 18歲의 男性으로 손발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補藥을 먹으러 來院

【형】 눈이 올라갔고 코는 내려왔으며 下顴이 빠졌고 귀가 주글주글하다.

【색】 특징없다.

【맥】 80/ 78

【증】

① 귀가 잘 나고 飲食은 잘 먹는데 살이 안찐다.

② 손발에 땀이 많이 난다.

【치료 및 경과】 八物湯 加 半夏·白茯苓·白附子·川烏

【고찰】

여기서는 몇 가지의 觀點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津液이 빠지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精氣神血이 衰退해지니까 그 結果로 因해서 病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下官이 빠진 사실이나 或은 귀의 好惡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津液門]을 보면, 손발에 땀이 난다는 것은 胃에 熱이 있어서 그렇다고 써놓았다. 땀이 나더라도 손등에 나는 것은 괜찮지만 손바닥에서 나는 것은 안 좋다.

하지만 여기서는 18세라는 나이를 重視해야 한다.

지금 이 때는 精이 가장 旺盛한 時期이다. 즉, 生殖機能이 가장 盛할 때이다. 그런데 生殖機能이 弱하니까 病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은 곧 變化할 때 變化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 때 쓰는 處方이 바로 八物湯이다.

男女의 變化數인 七七·八八數를 생각해 봐라! 氣血이 旺盛해야 卵子가 成熟되고 精蟲이 成熟된다.

【임상례 9】 81) 여자 30세

【형】 氣科

【맥】 68/ 68

【증】

① 불안초조하다.

② 수족에서 땀이 많이 난다.

③ 추위를 많이 탄다.

【치료 및 경과】 八物湯 加 半夏 茯苓 白附子 川烏

【고찰】

七氣의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온다. 精氣, 神, 血病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의 運行으로 나타난다. 手足에 땀이 나는 것은 精氣神血의 運行이 되지 않아서 津液이 세는 것이다.

【임상례 10】 82) 남자 19세 김**

【색】 鼻色 白

【맥】 76/ 70

【증】

① 皮膚가 고기 비늘과 같고 상어 껍질 같다.

② 腸鳴(留飲중세) 手足汗多

③ 발육이 느리다.

④ 大便이 小便처럼 물이 섞여 나온다. 大便 1일 2~3회

⑤ 右側脇痛

⑥ 성질 급하고 寒熱往來가 있다.

⑦ 少氣 口渴

⑧ 병원에서 홍반성낭창이라 한다.

【치료 및 경과】 苓桂朮甘湯⁸³⁾

재진 : 小便量이 늘었다. 大便이 굳어졌다. 芎夏湯⁸⁴⁾

【고찰】

五軟症에서 왔다 水毒에서 오는 病이다. 大便이 물처럼 나오는 것은 分消作用이 안 되는 것이다.

手足汗을 水逆症으로 보고 五苓散 쓸 수도 있다. 渴症 없앨 때 水逆症으로 보고 五苓散을 쓸 수도 있다. 물을 吸收 못하여 腸間에 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腎氣丸을 쓸 수도 있다.

芎夏湯은 水毒을 없애는 藥이다.

물이 下飲작용 못하여 입이나 手足에 땀으로 물이 湧出되어 나온다. 그래서 手足에 땀이 난다. 이때는 苓桂朮甘湯을 쓸 수도

78)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Ⅱ p.175

79) 대역 동의보감 p.188

80)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Ⅲ p.213

81) 지산선생 임상학특강Ⅳ p.308

82) 상계서 p.314

83) 대역 동의보감 p.200

84) 상계서 p.219

있다. 이때의 手足汗은 逆流로 본다. 腎氣丸은 물 한 되 먹고 오줌 한 되 볼 때 쓴다. 이것은 물이 吸收가 안 되는 것이다.

【임상례 11】⁸⁵⁾ 4歲의 男兒

【형】 입이 작다.

【색】 눈의 白睛이 푸르다

【증】 嘔吐하고 손바닥에 熱이 있으며 땀이 많다. 귀는 차고 기침을 많이 한다.

【치료 및 경과】 陶氏平胃散 4貼 / 異功散 4貼

【고찰】

白睛이 푸르면 당근즙이나 菜蔬汁을 먹이면 좋지 않다. 입이 작다는 것은 原來 밥을 잘 먹지 않게 만들어 졌다는 뜻이므로 조금 먹다가 치우고 또 조금 먹다가 치우고 하는 것이다.

嘔吐하고 손바닥에 熱이 있는 것은 食積熱이며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은 胃熱이 있기 때문이다.

陶氏平胃散은 高熱이 나고 嘔吐를 하면서 기침을 할 때 쓰는데, 熱이 나지 않고 嘔吐만 해도 쓸 수 있다.

陶氏平胃散을 써서 病症이 解消된 뒤에 服用할 수 있도록 마무리藥으로서 밥을 잘 먹게 해주는 藥인 異功散 4貼을 같이 지어 줬다.

아기가 구역질을 하는 것은 胃가 나빠서 먹지 않겠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胃에 부담이 가니까 안먹는 것이다. 이 藥을 服用하고 이런 症狀이 없어지면 밥을 잘 먹을 것으로 보며 억지로 밥을 먹이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임상례 12】⁸⁶⁾ 女子 41歲, 노○○(2001年 12月 11日 내원)

【형】 男性的(머리가 크다)

【색】 顏色이 浮澤하다.

【맥】 82/ 82

【증】

- ① 가슴이 답답하여 한숨을 많이 쉬고
- ② 浮腫이 있으면서
- ③ 잘 滯하고 쓰리며
- ④ 때로는 매스거리면서 泄瀉를 할 때가 있다.
- ⑤ 아랫배가 가끔 아프고
- ⑥ 緊張하면 손발에서 땀이 많이 난다.

【치료 및 경과】 香砂平胃散⁸⁷⁾

【고찰】

이 患者는 머리가 큰 男子 같은 女子로서 氣가 鬱하기 쉬운 患者로 특히 心氣가 鬱滯하여 胃腑에서 痰火가 發生하여 手足에서 땀이 나는 것으로서 우선 氣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 治療方法이 된다. 이에 氣鬱로 인한 食積과 痰飲이 嘈雜症과 陽明胃實을 초래한 것으로 行氣消食化痰하는 上記 處方을 投與하였다.

【임상례 13】⁸⁸⁾ 女子 64歲, 전○○(2001年 12月 7日 내원)

85) 상계서 p.310

86)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pp.852-860

87) 對譯 東醫寶鑑 p.1131

88)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pp.852-860

【형】 陽明形 走類

【색】 顏色이 붉다

【맥】 87/ 86

【증】

- ① 空腹시 속이 쓰리고
- ② gas가 많이 차고 잘 滯하고
- ③ 어지러우며 옆구리가 결리고 숨이 막히며
- ④ 눈물이 많이 나고
- ⑤ 손·발바닥이 불이 나듯이 뜨겁고 땀이 난다.

【치료 및 경과】 加減小柴胡湯⁸⁹⁾

【고찰】

이 患者는 走類로서 肝氣가 實해서오는 症狀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오래된 鬱症으로 火가 甚해진 것이다. 五心煩熱症을 治療하는 上記 處方을 投與하였다. 그리고 이 患者는 나이로 보아 老人에 해당하고, 五心煩熱症은 血이 虛한 틈을 타서 熱이 오는 것이므로 熱이 除去된 이후에는 血을 補充하여야 한다.

이상의 임상례를 종합하면, 임상례 1-6번까지는 心小腸熱로 인해서 手足汗, 手掌汗, 全身汗이 나는 경우인데, 小腸熱의 형상을 확인하고 赤茯苓湯을 써서 좋은 효과를 본 경우이다. 임상례 7-9번까지는 精氣神血의 운행이 되지 않아 津液이 새서 수족한이 발생하여 팔물탕가미방을 쓴 경우이고, 임상례 10번은 水逆症으로 茶桂朮甘湯을 쓴 경우이다.

임상례 11-12번은 食積과 氣鬱로 인해서 胃熱이 생긴 경우로 陶氏平胃散과 香砂平胃散을 쓴 경우이고, 임상례 13번은 走類가 肝氣實로 火가 심해져 五心煩熱症으로 인한 手足汗에 加減小柴胡湯을 쓴 경우이다.

한편 『東醫寶鑑』에 제시된 수족한 처방은 대시호탕과 팔물탕가미방이다. 이는 형상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각 양명형, 기혈구허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처방이다. 하지만 수족한 환자의 경우 신경이 예민하거나, 자체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어 상기의 처방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상기의 임상례와 같이 환자의 체질적인 측면과 질환의 원인에 대한 형상의학적인 진단 기술이 가미되면 더욱 정교하고 높은 치료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저자는 手足汗의 원인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형상의학적 관점으로 임상에 응용하여 치료효과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手足汗, 手掌汗, 足掌汗의 원인

① 手足汗의 원인은 胃熱(陽明熱), 胃虛冷, 脾胃濕熱, 脾胃氣虛, 脾胃陰虛, 陰經의 虛熱, 肝氣不舒, 心火亢盛, 心虛, 營血虧損, 手足少陰經의 기능이상(水升火降이상), 血分の 熱(심기능이상) 등이다.

② 手掌汗의 원인은 心肝의 음혈부족이나 心과 胃의 기능장

89) 上揭書 p.1112

에이다.

③ 足掌汗의 원인은 心腎이나 腎의 기능장애이다.

2. 手足汗의 원인에 따른 형상

① 胃熱, 脾胃濕熱이면 양명형, 식욕왕성형에 많고.

② 胃虛冷이나 脾胃氣虛이면 방광제, 기허, 기울형, 脾胃의 운화장애형.

③ 心火亢盛, 수족소음경의 水升火降 이상의 기능실조, 血分の 熱로 심기능 이상, 陰經의 虛熱이면 담체, 화성형, 정신활동과다형에 많다.

④ 肝氣不舒로 인한 手足汗은 활동과다형에 많다.

⑤ 手掌汗은 화성형이나 식욕왕성형에 많고.

⑥ 足掌汗은 식욕왕성형이나 기세침강형에 많다.

3. 형상의학적 치료는 특히 인중이 짧거나 들린 小腸熱 형상의 手足汗에 赤茯苓湯이 좋았고, 精氣神血의 운행이 되지 않아 津液이 새는 手足汗에는 팔물탕가미방이 좋았으며, 食積과 氣鬱로 인한 胃熱로 수족한이 생긴 경우는 陶氏平胃散과 香砂平胃散이 효과가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동의대학교 교내일반연구과제의 지원에 의한 것임 (Grant No. 2009AA114)"

참고문헌

1.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대역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2. 홍원식. 정교 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3.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 임상학특강 I, II, III, IV, V. 서울, 지산출판사, 1997.

4. 대한형상의학회. 芝山形象醫案. 서울, 지산출판사, 2003.
5. 채인식. 상한론역전. 서울, 고문사, 1984.
6. 신영일, 김선호 譯. 傷寒明理論. 대전, 주민출판사, 2003.
7. 沈全魚, 吳玉華, 沈麗鶴. 證治叢書. 서울, 도서출판 의성당, 1992.
8.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8.
9. 陳貴廷, 楊思澍. 실용중서의결합진단치료학. 북경, 중국약학과학기술출판사, 1991.
10. 張璐. 張氏醫通.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
11. 吳謙 등. 의종금감. 서울, 대성문화사, 1991.
12. 鄧鐵湊 主編. 중의진단학.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84.
13. 王永炎 主編. 중의내과학.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1.
14. 中醫研究院 主編. 中醫症狀鑑別診斷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7.
15. 張介眉, 杜獻琛. 人體排出物異常證診斷治療學. 북경, 중국의약과학기술출판사, 1994.
16. 楊思澍, 張樹生, 傅景華 主編. 中醫臨床大全. 북경, 북경과학기술출판사, 1991.
17. 김관우. 사암침법병증론. 초락당, 2009.
18. 안영기. 경혈학총서. 서울, 정보사, 2002.
19. 최영성.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서울,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4):852-860, 2003.
20. 조장수. 중풍과 유사한 四肢不用에 대한 형상의학적 치료. 서울, 대한형상의학회 논문집, 1999.
21. 정희재 등. 다한증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경희의학 13(4), 1997.
22. 류정아, 정창현. 부위별 한출의 기전에 대한 연구.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2(1)(통권 제44호), 2009. 2.
23. 류정아, 정창현. 하루 중 時間變化에 따른 汗出의 기전에 대한 연구. 대한 한의학 원전학회지 22(3)(통권 46), 2009. 8.
24. 이건영 등.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다한증 환자의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9(1), 2008. 3.